



5월20일
목요일

보도자료


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김성진	☎	286-655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환경친화적인 축산농가의 변화가 축산악취를 사라지게 했다 !

-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효과로 1분기 축산악취 민원 20%감소 -

- 전남도는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(165건)이 지난해 1분기(206건) 보다 20% 감소하는 등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.
- 금년 1분기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,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과 퇴·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농가의 인식개선이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.
- 전남도는 올해 축산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지원에 1,200톤 60억원, 개방형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밀폐에 50농가 15억원,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를 위한 시설·장비 지원에 50농가 15억원을 투입하고,
- 도내 5개 축산악취 개선지역을 선정해 106억원, ICT 악취측정장비 38대 8억원, 마을형 공동 퇴비화시설 8개소 16억원 등 9개사업에 1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. 또한, 축산악취 민원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축산악취 최소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2017년부터 추진해온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이 작년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”며 “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냄새 없는 축산농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.

* 악취 민원 건수 : '19) 752 → '20) 735 → '21.3.) 165